

광주세계양궁대회 D-30...경기장·숙소 등 준비 ‘박차’

전세계 90여개국 1100여명 선수 참가...15일까지 추가 엔트리 등록
경기장 시설개선·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숙소·경기장 수송 버스 운영

세계 최고의 양궁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장인 ‘광주 2025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선수들과 관객들의 안전·수송·숙박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 90여개국 최정상급인 비장애인·장애인 선수들이등록 신청을 마쳤고 엔트리 마감일(8월 15일)까지 추가 등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공사 마무리 = 광주시는 세계양궁연맹(WA)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예·본선 경기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기존 210m 폭에서 좌우 각 10m씩 총 20m를 확장했다.

또 경기장 준공 10년 경과에 따라 고사된 잔디를 새로 심고, 외부 도색, 노후 관람석 의자 교체 등 시설개선도 진행했다.

비장애인 선수 경기에 이어 장애인선수 경기도 진행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 관람객을 위한 전용구역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결승경기장 주요 관람구역 전면에 휠체어석을 마련한 것이다.

도심 한복판인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이 진행됨에 따라 특별 경기장을 조성해 800여석 규모의 임시 관람석이 설치한다. 또 이 기간 현재 공사중인 옛전남도청 복원공사 가림막을 없앨 예정이다. 관람객의 안전관리와 동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조직위의 설명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숙소·수송대책 마련 = 광주시는 선수단의 쾌적한 숙박 환경을 위해 광주지역 내 12개 호텔, 총 800여 객실을 확보했다.

조직위는 참가 선수단의 편안한 체류와 원활한 경기 준비를 위해 숙박, 수송, 식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각 호텔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에게는 예·본선 경기장 내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등 이동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에는 12일간 총 372대 버스가,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11일간 총 184대의 버스가 각각 투입하는 등 수송 부문 역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광주까지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국가별 대기시간 조정 및 신속한 수송을 지원하며, 경기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양궁선수권대 참가자를 위해 휠체

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별도로 운영한다.

입장권 사전예매도 8일까지 진행된다. 입장권(종일권·오전·오후권 등)을 다양화해 관람객이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전예매 기간에는 정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조직위는 친환경 대회로 치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세계양궁연맹(WA)과 대한양궁협회 등과 협의해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적거나 양궁 기반이 부족한 양궁 저개발국가 10개국 15명의 선수를 초청해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의 계기를 조성한다.

◇전 세계 양궁인 치열한 경쟁 =각국 선수들은 결승전에서 총 10개 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단체·혼성 컴파운드(남·여) 결승전은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8일에는 개인 컴파운드 여자 결승전, 9일에는 개인 컴파운드 남자 결승전이 열린다.

10일에는 단체와 혼성 리커브(남·여) 결승이 진행되고, 11일에는 개인 리커브 남자 결승전이 열린다. 결승전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개인 리커브 여자 최종전이 대미를 장식한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도 오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다. 광주시민과 전세계 양궁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환희를 선사할 것이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한편 8월 4일 기준으로 비장애인대회에 76개국 739명, 장애인대회에 43개국 427명의 선수단이 엔트리 등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괴물폭우 대비 모래주머니 제작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교친수공원 주차장에서 작업자들이 침수 예방에 사용할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맞춤형 지원으로 호우 피해 복구 총력

주거 피해 최대 550만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전남도가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잇따른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일상 회복 돕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호우로 일상 복구가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5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특례 금융 상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도내 주택 94동, 상가 71동, 농작물 1만여ha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주거생활 공간이 훼손된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350만원을 지원한다.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200만 원의 의연금까지 더하면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전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2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능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동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억원 한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일괄 0.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남도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오는 8일까지 침수피해가 컸던 함평군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피해 규모가 큰 지자체가 ‘재난특별지역’ 지정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4일 이틀간 전남도에는 최대 300mm에 가까운 극한호우가 내렸다. 무안 망운면의 경우 289.6mm, 담양 봉산 196mm, 구례 성삼재 188mm, 압해도 175mm 등 100년 빈도의 호우를 넘어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남도 곳곳에 생체기를 낳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도의회·대학

통합 국립의대 설립 협력

추진 사항·정부 주요동향 공유

전남도가 5일 전남도의회, 목포대, 순천대와 함께 국립의대 설립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남 국립의대 필요성, 새정부 대선공약 반영 현황,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노력,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 추진 사항, 최근 정부 주요동향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국립의대 특위)와 함께 국회·정부 간의 방안, 정책 논의 공동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의대 신설 촉구 및 홍보 방안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국립의대 특위는 전남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구성된 도의회 전담 기구다.

전남도의회 국립의대 특위는 “의회 차원의 대응 기구로서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정부 설득, 전략 수립, 대외 홍보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대와 목포대 의대설립추진 관계자들도 “지역 국립대학으로서 국립의과대학 유치가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실무적 준비와 정책적 대응 등 모든 역량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AI·미래차 등 내년 예산확보 총력

강 시장, 경제부총리와 간담회 등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2026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마북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 등 광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64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 기술개발을 위한 AX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 총사업비 6000억원), 미래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반구상 용역(총사업비 20억원),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450억원) 등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총사업비 995억원),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총사업비 200억),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302억원), 마북동 탄약고 이전(총사업비 3262억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총사업비 158억원) 등도 현안으로 요청됐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 사업들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 및 여·야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뒷받침할 산업이 함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정에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 등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특별법 개정 및 국비 편성 등 국가 차원의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한 사람의 보험사고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알바 댄는데 해볼래?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 Marine Insurance Association

IGA보험GA협회 IG&A Insurance Association